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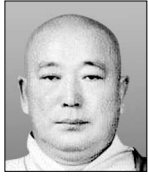
일주문



4개 국어 '법화경' 발간
동국대학교 이사장 현해 스님은 9월 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타워호텔에서 법어, 한문, 영어, 한글 등 4개 국어로 된 <법화경> 발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동명대와 산학협력체결
부산 잠여불교운동본부 상인대표 혜홍 스님은 8월 25일 부산 동명대학에서 박용수 동명대학 학장과 불교캠퍼스 개설을 위한 산학협력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동국대에 연구진흥장학금 전달
해남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은 8월 20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에 조선불교연구 진흥 장학금 250만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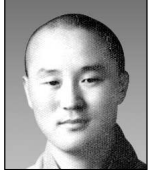
단체재료 지원 차 방북
천태종 나누며나니회기운동본부 사무총장 무원 스님(총무원 사회부장)은 북한 개성 영동사 복원을 위한 단체재료 지원 차 8월 31일 방북했다.



금강불교대학 2학기 개강
고양시 흥곡사 주지 대오 스님은 9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설법전에서 금강불교대학 2학기 개강법회를 봉행한다. (02)381-7970



'물사랑 실천 현장' 견학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장 정수 스님은 9월 15일 오전 10시 중랑하수처리장 수지와 정릉천 일대에서 '물사랑 실천 현장' 견학을 갖는다. (02)927-1232



'오세암' 등 불교영화 상영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8월 18-19일 법왕사 경내에서 '오세암', '룬둔' 등 불교영화를 상영해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웰빙 전통사찰음식 강좌 개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전문 스님은 9월 1일 가을철 웰빙 전통사찰음식 정기 강좌를 개설한다. (02)355-5961

인사

학교법인 동국대 △명성여고 교장 박명순 △명성여중 교장 김정숙 △금산중고 교장 채규수 △명성여고 교감 이춘신 △명성여중 교감 배용만 △금산고 교감 조봉권

동국대 <서울캠퍼스> 조교수 △최창철 법학과 전임강사 △김영준 영상정보통신대학원 △황순일 인도철학과 △허남걸 윤리문화학과 △성정석 생물학과 △양우철 물리학과 △이경원 경제학과 △김승용 · 박찬규 경영학과 △이상철 회계학과 △조준형 식물자원학과 △윤선태 역사교육학과 △신나민 · 조상식 교육학과 △강준애 연극학과 <경주캠퍼스> 전임강사 △김경태 법학과 △이영찬 전자상거래학과 △하동엽 · 송인국 · 광경필 · 권순백 · 조재혁 의학과



박경모 장용호 이성진 진종오 라경민 이경원

“메달에 부처님 가피 담겼지요”

아테네 올림픽 박경모 장용호 이성진 진종오 라경민 이경원 선수 불자 메달리스트

2004 아테네 올림픽을 빛낸 메달리스트 박경모 장용호 이성진(이하 양궁 금), 진종오(사격 은), 라경민 이경원(배드민턴 동) 선수의 공통점은 바로 불자라는 것이다.
참선으로, 명상을 통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또는 사찰에 가기만 해도 마음 다스리기에는 불교가 최고라는 불자 선수들, 금의환향한 이들의 목에는 색깔은 각자이지만 피땀 흘린 성과를 고스란히 담은 메달이 반짝이고 있었다.
8월 21일 양궁 남자단체전 결승이 있던 날 장용호 선수(28·예천군청)의 고향에서는 절에서 향사 손자를 위해 기도했던 할머니 박갑덕(84) 씨가 기쁨을 이웃들과 나눴다. 남편을 아테네에 보낸 뒤 하루도 빠짐없이 삼백배를 올린 아

내 이강미(29) 씨는 “결승전이 열리는 날 팔과 함께 절에서 승리를 기원했고 할머니도 인근 절에서 기도했다”며 “어린 딸이 아빠를 위해 기도한 정성이 승리를 안겨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모 선수(29·인천계양구청)를 아테네에 보내고 정한수 떠놓고 정성드리는 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했다는 박 선수의 어머니 김순애(57) 씨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니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오징어 무침으로 푸짐한 밥상을 준비하겠다”며 기뻐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양궁 이성진 선수(19·전북도청)의 어머니 김옥순(42) 씨는 “개인전 결승까지 오를 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은메달을 따주었고 단체전에서는 금메달까

지 목에 걸어 자랑스럽다”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것으로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권총의 기대주이자 무명신화를 만들어낸 진종오 선수(25·KT)는 무명이라 기대가 없어 마음이 편하다며 평소 무심도리를 실천해왔다. 아버지 진재호 씨는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메달을 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동메달을 딴 라경민(28·대교농높이)·이경원(24·삼성전기) 선수도 사찰을 자주 찾는 불자. “금메달이 아니어도 소중한 메달을 따 기분 좋다”고 말한 두 선수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운동의 세계로 들어갈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인재불사 가장 급한 일

정진장학회 설립 지범 스님



“불교의 미래는 수행과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정진장학회’는 인재 불사를 위한 작은 시금석이 됐으면 합니다.”
8월 15일 서울대 의대 및 영문과,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생 등 7명에게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계기로 ‘정진장학회’를 설립한 서울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사진). ‘수좌계의 마당발’로 불리는 지범 스님은 “은사스님의 법명을 따서 장학회를 설립했다”며 “장학회는 신도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장학회의 지원대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과 인성과 학업이 뛰어난 학생들. 4년 동안 푼돈이 모아 온 1억원의 증자돈을 보시한 지범 스님은 젊은 불자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어 향후 불교를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스님은 또 “제가 씨앗만 뿌리고 거두기는 신도회와 불교계에서 거둘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밝혔다. (02)823-7443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8년간 시조 2만2천7백수 써

최다 창작 기네스북 도전 도열 스님



“물 흐르듯, 마음 가는대로 시조를 쓰다 보니 2만여 수가 훌쩍 넘었습니다. 제 작품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우리의 시조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제 해양사 주지 도열 스님(사진)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 시인 시조(時調) 최다 시작(詩作)으로 세계 기네스북(The Guinness World Records Book) 등재에 도전한다.
‘최도열 시인 세계기네스북 등재 추진위원회’는 8월 25일 세종문화회관 오페라하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님이 199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쓴 2만 2,700여 수의 시조를 세계기네스북 본부에 등재 요청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원회는 스님의 시조 2만여 편을 227권의 시조집으로 묶어 출간했다.
도열 스님은 1950년 통도사로 출가한 후, 96년 계간 <현대시조> 신인공모전에 당선돼 등단했다.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통도사, 불교도서관 기공식



통도사(주지 현문 스님)는 8월 25일 통도사 솔밭 주차장 차고 철거지에서 불교도서관 건립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방장 조우, 주지 현문, 전계사 해남, 박물관장 범하 스님, 오근섭 양산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기숙사 준공법회



동국대(총장 홍기삼) 경주캠퍼스는 295실(2인1실)로 5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숙사를 8월 23일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사장 현해, 현성, 영담 스님을 비롯해 홍기삼 총장 등이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법타 스님 만해대상 수상 축하법회



조국평화통일 불교협회장 법타 스님(은혜사 주지)의 만해대상 실천부문 수상 축하법회가 8월 25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열렸다. 은혜사 말사 주지 연합회, 대구평화통일불교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대구불교방송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축하법회에는 200여명이 동참했다.

ROTC 사관후보생 8백명 수계



육군행정학교 산하 학생중앙군사학교 호국남성사는 8월 22일 네발 대성적가사 조실 도문 스님을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사 도문 스님은 ROTC사관후보생 8백여명과 현역장병 30여명에게 계를 내리고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고 이끌어 갈 동량이 될 것”을 당부했다.

동산불교대학·일찬불가 합동공연



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임)이 일본 북해도 양원사(주지 이즈모지)와 함께 8월 18-22일까지 일본 양원사 등지에서 ‘제3회 한·일불교문화교류’를 개최했다. 3천여명이 참가한 이번 문화교류는 찬불가 합동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Advertisement for Bt TV featuring a lotus flower and the text '세상을 맑게 삶을 여유롭게'.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02-3270-3333/3366~3369 www.btn.co.kr